



크로싱아트 페루 작가 전시 플러싱 퀸즈크로싱아트(136-17 39애브뉴)에서 페루작가 안나 데 올베고소의 전시 '패러렐링 내러티브(Paralleling Narratives)'가 오는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. 이번 전시에서 올베고소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다. 왼쪽부터 올베고소, 마리아 부비스 크로싱아트 어시스턴트 디렉터, 웨슬리 신 크로싱아트 PR매니저, 애니타 리우 F&T그룹 부사장. [퀸즈크로싱아트 제공]